

새롭게 세워진 더 좋은 언약

히브리서 8:1-13

【인도자를 위한 예화】

북 아메리카 체로키 인디언의 성인식 이야기입니다. 체로키 부족은 전통에 따라 매우 독특한 성인식을 치릅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면 아버지는 숲으로 아들을 데려갑니다. 인적 없는 깊은 숲에 도착하면 아버지는 준비한 눈가리개로 아들의 눈을 가립니다. 소년은 아침이 올 때까지 숲속에서 홀로 하룻밤을 보내야 합니다. 소년은 밤새 온갖 공포와 싸웁니다.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이 곤두서고,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상상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밤보다 짙은 어둠의 시간을 견디고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제야 소년은 눈가리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눈가리개를 벗은 소년의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던 그 밤, 아버지는 내내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창과 활을 메고서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인식을 통해 아들이 배운 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견뎌 내는 방법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아들의 마음에 가장 크게 새겨진 것은 바로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어른이 됩니다.

혼자라고 생각되는 순간 나의 곁을 지켜 준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의 곁을 지켰던 적이 있나요?

【본문 읽기】 히브리서 8:1-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히브리서는 핍박과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주목합니다. 8~10장에는 옛것과 새것, 많은 것과 하나인 것, 지상과 천상, 육과 영,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등 서로 대조되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8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천상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6절). 8장은 또한 새 언약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10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지만, 새 언약은 어떠한 외적인 제약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예수님이 얻으신 더 아름다운 직분은 무엇인가요? 이 직분은 무엇으로 세워진 것인가요?(6절)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의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분입니다. 6절은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중재'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시테스'는 '중간에 위치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고대 헬라 시대에는 시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헬라어로 '메시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분쟁이 법적인 문제로 가기 전에 서로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하시는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을 빌려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강조합니다. 그의 설명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고,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일하십니다. 본문이 예수님을 중재자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헬라 시대의 중재자는 또한 보증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다. 법적인 사건에 대해 결론이 나면, 그 결정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보증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중재자인 예수님은 중재자인 동시에 보증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도우십니다.

적용과 나눔 I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중재로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탁월한 중재자가 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지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사역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하고 특별한 사역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심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약속되었다는 것에 안주하며 이 땅의 편안함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지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마 6:24).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과 함께 순간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찰과 묵상 II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맺으시는 ‘언약의 법’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겠다고 하셨나요?(10절)

새 언약의 법을 하나님 백성의 생각에 두시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실 새 언약의 특징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세워질 언약의 법을 사람들의 생각에 두실 것이며, 마음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생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노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레브’, 혹은 ‘레바브’의 의미(심장, 마음, 중심 등)로 번역됩니다. ‘생각’은 지적인 영역을 넘어 감정과 의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속에 새 언약의 법을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이제 삶 속에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우리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모든 영역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과 맺는 새 언약은 외적인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며, 더 높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적용과 나눔 II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어떤 점에서 달라졌다고 느끼는지 나누어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능력도, 행할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기억하며 함께하는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일상에서 맺히는 작은 열매들(갈 5:22~23)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